

경제신문 스크랩 양식

헤드라인	IT산업 5년앞 모른다 해도 클라우드가 답, 이견 확실
기사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767289/
본문	<p>[✓ 탐 송 한국 오라클 사장 인터뷰 ✓ 2세대 클라우드 韓에 적극 도입 ✓ 기업이 서버 요구 땀 당일 제공 ✓ DB 자율 관리 & 복구 시대 열릴 것]</p> <p>"지난 36년을 정보기술(IT) 업계에 몸담았는데, 앞으로 5년 뒤가 깜깜합니다. 그만큼 IT 혁신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겠죠. 다만 하나는 명확합니다. 클라우드 성능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만큼, 클라우드 성능에 대해 기업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것입니다."</p> <p>탐 송 한국오라클 사장은 1986년 미국에서 모토롤라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무려 36년 동안 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가 바라보는 IT 업계의 다음 단계는 4음절로 요약된다. 바로 '클라우드'다. 송 사장은 "한국이 IT가 발달됐지만, 클라우드 도입이 미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클라우드 적용에 탄력이 붙었다. '기업 주요 업무를 클라우드로 처리한다'는 명제가 너무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아직 전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이 절반도 채 안 됐다"고 설명했다.</p> <p>클라우드 업계에서 최근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곳이 바로 오라클이다. 오라클은 2세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 리전'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3년 전 10개가 채 안 됐던 글로벌 클라우드 리전을 2020년 말 기준으로 36개까지 확대했다. 시장 1위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보다 많은 숫자다. 국내에도 2019년 서울에 1호 리전을 개소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에 제2리전을 열었다.</p> <p>송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자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데이터 관리를 남의 회사에 맡긴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기를 쓰려는 사람 입장을 떠올려보자.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사용하나. 소비자는 벽에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을 때 안전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 이라고 말했다.</p> <p>그러면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는 대표적 사례로 HMM을 소개했다. 송 사장은 "HMM은 전통적인 사업 분야인 해운물류 특성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며 "하지만 계약 관리, 인보이스, 예약 업무를 포함해 기반 업무 전환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했고, 2019년 오라클 ERP 클라우드 1차 도입 이후 2020년 4월 선박 관련 시스템도 전부 클라우드로 전환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오라클은 오직 데이터 관리와 클라우드 관리만 전문적으로 다룬다. 그게 일이다"라며 "기업이 필요한 서버는 신청한 바로 그날 제공한다. 기업 자체적으로 별도의 설비를 구비하고 설비 운용 인력을 뽑는 등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로 비즈니스 민첩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다.</p> <p>송 사장은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예전에 하던 고객을 만나서 접대하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하는 등 일의 기본을 데이터로 다루는 것이다."</p>

	<p>데이터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면 고객과의 접점이 차원이 다르게 높아진다"고 말했다.</p> <p>그는 '클라우드'는 '디지털전환' 자체라기보다는 도구이자 조력자라고 했다. 송 사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달할 것이냐, 온프레미스 방식(자체 서버 설치운영)으로 전달할 것이냐, 섞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달할 것이냐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클라우드를 썼을 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밸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철저한 보안으로 믿음을 주는 게 바로 오라클의 클라우드라고 했다.</p> <p>업계 최초로 설계된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 석권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 사장은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자율 운영 IT 시스템 시대가 열린다"며 "오라클은 업계 최초로 머신러닝으로 자율 관리, 자율 보안, 자율 복구가 가능한 DB를 설계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복구하고 패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 DB 관리자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자신의 IT 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율 운영 시스템 도입이 곧 미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정리	<div>[오라클 클라우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 리전'을 공격적으로 확장-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DB) 기능- 머신러닝으로 자율 관리, 자율 보안, 자율 복구가 가능한 DB를 설계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복구하고 패치를 설치함 <p>(1)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한 DT전환 예시 - HM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사업 분야인 해운물류 특성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늦었음- 그러나 계약 관리, 인보이스, 예약 업무를 포함해 기반 업무 전환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함- 2019년 오라클 ERP 클라우드 1차 도입 이후 2020년 4월 선박 관련 시스템도 전부 클라우드로 전환 <div>[클라우드의 현실과 디지털 전환의 해결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전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이 절반도 채 안 됐음➔ 한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자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데이터 관리를 남의 회사에 맡긴다는 것에 대한 저항- 디지털 전환은 예전에 하던 고객을 만나서 접대하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하는 등 일의 기본을 데이터로 다루는 것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중요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div>[하이브리드 클라우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리소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성능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 구현 가능- 초기 선 투자 없이 쉽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 내부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 효율성, 유연성, 보안성 모두 확보 가능

- 많은 기업들이 초기 투자 및 운영 효율성, 클라우드 이동성 확보, 재해복구 최적화, 글로벌 서비스 확장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

■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 기존 업무를 리플랫폼 없이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업무 워크로드 이동이 쉬워야 함
- 내부 보안 규정, 데이터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등 서비스 수준(SLA)을 맞추기
-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단일한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퍼블릭 클라우드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 - 비용과 이동성]

- 보안은 물론 가용성과 성능을 기대와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
- 클라우드 확장과 이전을 위한 마이그레이션이나 워크로드 이동에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다운타임이 수반
- 애플리케이션 및 아키텍처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SI 프로젝트가 소요
- 이원화된 환경에 따른 보안, 관제, 암호화 등 솔루션 투자비용도 증가
- 기존 인력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연계 솔루션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어려워지며, 클라우드 운영관리 이원화로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운영 관리 복잡으로 비용 증가

연관기사 링크

디지털 전환(DX)의 중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https://zdnet.co.kr/view/?no=20210208093027>